

영생의 은혜에는 끝이 없다

감로의 광명이 썩은 피를 제거해준다

하늘나라 천국이 하늘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리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죠?

피가 썩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

그런고로 오늘날 천국도 마음속에 있으며 영생도 마음속에 있는고로 영생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의 몸도 영생의 몸으로 변해오, 안 변해오? 사람의 몸만 영생의 몸으로 변할까, 이 세상의 만물도 영생의 만물로 변할까요? 이 세상 만물도 영생의 만물로 변하는 거죠?

그런고로 문제는 그 마음이 죽을 마음을 먹기 때문에 죽는 것이요, 병 걸릴 마음을 먹기 때문에 병 걸리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이 병균이 들어와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늙은이 피로 변해서 늙는 것입니다. 피가 썩는 것도 마음 때문에 피가 썩는 거지 피 때문에 피가 썩는 게 아니죠? 근본이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온전하게 돼

그런고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까요, 고생스럽게 살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문제가 되고 영생할 마음, 영생하는 마음을 먹기만 먹으면 반드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본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어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100% 믿을 때 그렇게 믿는 환자의 병은 낫지만 그 의사가 내 병을 고칠까, 못 고칠까? 반신반의 하면 그 병은 아무리 명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못한 것이 패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온

전한 것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초창기에 이 사람에게 부여된 기간이 3년 반, 3년 반, 3년 반 세판지기라는 말씀을 하니 까 이 사람이 세상에 육적인 말을 한 거야, 영적인 말을 한 거야? 영적인 말을 한 거죠? 3수는 하늘의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수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이 역사가 영원무궁토록 갈까? 3년 반, 3년 반, 3년 반, 10년 반 밖에 안 갈까? 영원무궁토록 가죠? 이 역사가 영원무궁토록 가는 역사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영생하는 하나님이 다 된다고 해서 이슬이 안 내릴까요? 이슬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인고로 감추었던 만나를 바로 하나님이 먹고 사는 양식이야. 그런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이슬은 영원무궁토록 내리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은 시작과 끝이 없어

이제 그대로 3년 반, 3년 반, 3년 반, 10년 반 해서 금년 2월 달이면 끝이 나다, 그러면 금년 2월 달,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끝나겠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고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하나님의 신은 영생의 신인고로 시작과 끝이 없는 영인고로 이제 그대로 끝나는 일이 없어. 마귀를 완전히 전멸하는, 완전히 마귀가 전멸되는 그러한 끝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고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 라고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논하는 거죠? 그런고로 진짜 학문과 진짜 종교를 이 사람이 말씀을 해오, 안 해오?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였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사람 자체가 현재 마귀의 종인고로 마귀의 학문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의 학문은 없다고 해야 그게 말이 맞아, 안 맞아? 말이 맞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인고로 마귀가 사키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고, 마귀가 그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고로 그런고로 “마귀의 학문은 있었지만 이제 그대로 진리의 학문은 있어본 적이 없었다.” 하는 말이 답변이 돼, 안 돼? 사람이 마귀의 종이라는 걸 가지고 마귀의 종교는 있을 수 있지만 진리의 종교는 있었다가 돼, 없었다가 돼? 그 걸로 답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교와 학문이 없었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영이라면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생각이 조종되고,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귀의 학문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학문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정확하죠? 그런고로 마귀의 학문을 가지고 많이 안다고 제세를 하지마는 여기 오면 마귀 학문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코가 납작해져,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사람이 병이 걸린단든지 늙는단든지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몸으로부터 어떤 환자한테 오염이 되어서 병이 걸리고, 나이가 먹어서 늙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게 학문이야? 사실이 아니냐 학문이 아니냐? 사실을 논한 것이 학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오늘날 이 세상 학문이, 학문이 아니라는 반론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고 있어요. 뼈뺌하게 대고 있어요? 정확하게 학문이 아니라는 걸 대고 있죠?

그런고로 오늘날 병균에 의해서 병이 걸린다, 신경을 써서 정신이 해이해져서 병이 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신경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야, 마음을 잘못 먹으면 피가 썩어요. 아시겠어요?

발병원인: 나라는 주체의식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화를 낸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신경질을 낸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못마땅한 생각을 한다든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나라는 의식이 정욕을 부린다든지 하면 피가 썩어, 안 썩어? 피가 썩어요, 피가 썩으면 썩은 피가 암 세포를 이루어, 안 이루어? 암 세포라는 건 썩은 피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피가 썩어서 썩은 피가 오래 되면 오래된 썩은 핏속에서 장구벌레 생기는 것처럼 병균이 생겨, 안 생겨? 병균이 생기죠? 그런고로 그 병균을 죽이는 주사약을 투입시켜서 병균을 죽여 버리면 일단은 안 아프죠? 안 아픈 걸 가지고 병이 낫다고 해서 돈을 받고 퇴원을 시켜, 안 시켜? 퇴원을 시키죠? 그런데 바로 그 병이 재발 돼, 안 돼?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조건이, 이제 병균만 제거를 했지 병균을 생산해 내는 썩은 피를 제거했어, 못했어? 썩은 피를 제거 못했어. 아시겠어요? 이런 걸 오늘날 최고의 첨단 과학을 안다는 의학 박사들이 알아, 몰라? 이걸 모르니깐 학문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감로로 썩은 피 제거

그래서 그 썩은 피 제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승리제단에서 내리고 있는 이슬이라고 하는 감로의 광명이 썩은 피를 제거해주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소변으로 썩은 피가 쏟아져 나가. 이거 의사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나 여 기서는 플라 색깔 되는 시켜면 썩은 피가

소, 대변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썩은 피를 제거해 주는 거야, 썩은 피를 그냥 놔두는 거야? 제거 해 주는 거죠?

그런고로 이 썩은 피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고로 그 능력으로 썩은 피를 제거 해 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자는 실력자야, 쥐빨도 실력이 없는 자야, 실력자야. 아시겠어요? 아는고로 실력이 있는 걸까, 쥐빨도 모르는고로 실력이 있는 걸까? 알고 있는고로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과 바로 여러 분들의 마음이 일치됐을 때 여러분들 털구멍으로 이슬의 광명의 빛이 들어가 썩은 피를 제거해 주는 거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시간 시간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 이슬의 광명이 이제 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격암유록에 “이건기타피델마.” 라는 말이 있죠?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박살된다는 소리죠? 눈으로 바라보는 거와 같이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 바로 자신 속에 있는 마귀가 마귀가 박살되는 거야. 박살돼 가지고 마귀의 몸이 되는 썩은 피가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지죠?

그런고로 오늘날 이 세상에 썩은 피를 제거하는 학문이 있어? 이 세상에 없어. 그런고로 썩은 피를 제거하는 학문이라야 진짜 학문이야, 썩은 피가 제거되어 영생하는 거지, 썩은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승리제단에 매일 같이 나와서 이슬의 빛을 매일 받기만 받으면 썩은 피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그걸 구세주가 제거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1992년 1월 2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⑦ 아브람과 조카 롯 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며

⑦ 아브람과 조카 롯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람과 롯의 가족이 다시 네게브(Negev)로 돌아온 이후로, 아브람이 기르고 있던 가족들이 늘어나고 금과 은 여러 가지 보물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조카 롯의 양과 낙타 그리고 종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아브람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날로 늘어나자 아브람 쪽의 양을 치는 목자와 롯의 양을 치는 목자 사이에 풀을 먹이는 초장을 놓고 하루가 멀다고 서로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양떼들에게 먹일 풀과 풀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날이 갈수록 크게 벌어져만 갔습니다.

화평을 사랑하고 욕심이 없는 아브람은 생각 끝에 아무래도 어느 쪽에서든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가어만 이 싸움이 없어 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롯은 마흔 살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의 유언을 좇아 그동안 말아온 롯의 아내 하란의 재산을 롯에게 상속하고 분가할 시점이

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람은 조카인 롯을 불러 말했습니다.

“롯아! 나와 나, 그리고 네 양을 치는 목자와 내 양을 치는 목자 사이에 싸움이 없도록 하자. 아무튼 우리는 같은 핏줄을 이은 집안끼리가 아니냐. 아직 넓은 땅이 우리들 앞에는 얼마든지 있다. 자, 서로 헤어져서 살자꾸나. 만약 네가 왼편쪽의 땅을 잡으면 나는 바른편 쪽을 택하겠다. 만일 네가 바른편 쪽을 땅을 찾아가겠다면 나는 왼편쪽 땅을 찾아서 떠나자. 자, 네 마음에 드는 기름진 땅을 내가 먼저 골라라”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좋은 아브람의 말을 들은 롯은 고개를 들어 눈앞에 흰하게 트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네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_ 창13:8

2절: 아브람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⑧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며

벧엘의 동편 산에서 바라본 그 들판은 요단강이 흘러 40킬로미터 아래 있는 사

해로 들어가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사해 동편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변화한 큰 도시도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롯에게는 기름진 평야와 함께 큰 도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롯이 아브람에게 “저는 저기 요단 들판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누이동생 이스가와 함께 동으로 천막을 옮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람은 롯에게 기름진 평야를 주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요단강 기슭의 기름진 땅으로 내려온 롯은 처음 얼마 동안은 평야에서 가족을



마흔 살의 롯이 분가하다
Genesis 13 Abram and Lot Separate
<http://www.believetrust.com/bible/genesis-13-abram-and-lot-separate/>

치며 살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들의 천막이 큰 시가지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소돔이라는 도시에 눈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롯의 천막은 소돔의 시가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실상 소돔이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이지만 속은 무서운 죄악이 가득 들어찬 곳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분가한 롯은 열 살 아래의 누이동생 이스가를 아내로 삼아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안젤라